

강진 동부권역 구도심 재생 나선다

사의제 저잣거리 조성·다산수련원 동성리 신축 이전

주민들 “방치된 도시계획 도로 개발 등 지원 병행 필요”

강진군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슬럼화된 강진을 동부권 지역에 ‘사의제 저잣거리’를 조성하고, ‘다산수련원’을 신축 이전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2일 강진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전남공무원교육원을 도암면 만덕리 ‘다산수련원’ 부지로 확정하고, 내년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남도는 2019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2020년 5월까지 교육원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다산수련원을 전남도에 매각하고, 내년 말까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강진군은 지난 26일 주민과 각급 사회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산수련원 이전 건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대부분의 지역민은 “다산수련원 신축 이전 부지로 강진을 동부권역인 동성리 일대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냈다.

강진군은 이 같은 지역여론을 수렴해 이달 내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건축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다산수련원 이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다산수련원 이전 사업비 100억원과 사의제 저잣거리조성 45억원, 한옥

체험관 20억원 등의 165억여원의 사업비가 예상됨에 따라 다산 관련 시설과 연계·조성해 예산절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진군은 이번 다산수련원 이전 등으로 지역내 균형 발전과 동부권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구도심인 강진을 동부권은 경제·교육·주거 환경 등 각종 생활여건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서부권 지역에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등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서부권내 초등학교 선호현상이 심화하는 등 인구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2중 주거지가 없는 동부권은 주거지 기피현상과 함께 상가침체 등으로 부

동산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강진을 소재 초등학교 취학률만 보더라도 서부권 학교인 중앙초교 신입생은 115명이며 전교생 750명, 31학급이다.

반면 동부권역 강진동초교는 신입생 9명, 전교생 94명, 7학급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강진을 동성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강진군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인 사의제 주변을 개발하고, 다산수련원도 신축 이전하기로 했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구도심 지역의 빠른 활성화를 위해선 오랜 기간 방치된 도시계획 도로 등을 조기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고창인 3천명이 한곳에 ~ ‘한마음 큰잔치’ 성료



고창인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는 ‘제16회 재경고창인 한마음 큰잔치’가 지난 1일 서울 성동구 삼각이 체육공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가자! 세계로, 오라! 고창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재경고창청년회(회장 김용현)가 주최·주관하고 재경고창

군민회(회장 임정호)가 후원했으며, 향우회 및 가족, 고창군민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체육대회에는 고창출신으로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백재현, 강병원, 홍영표 당선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우경 군수는 “고창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민과 재외군민 모두가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만 한다”면서 “지역 농특산품 애용하기와 나들이를 계획할 때 고창 방문을 우선 생각하는 등 따뜻한 관심과 실정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고훈석기자 ghs@

산란기 어패류 보호

불법어업 단속 강화

부안군은 2일 “불법 산란기 어패류 보호 등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의 지속적인 소득 증대에 위해 5월 한 달간 해상 및 육상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감소하는 연안어장의 수산자원을 증대시키고자 어업생산기반 구축과 풍요로운 어촌 구현을 위해 올해까지 50억원을 투자해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수요증가 추세에 있는 해삼을 부안군 대표 수산물로 선정하고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 올해 5억7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삼 등 중요양류 사업 등에 나서기로 했다.

부안군은 특히 5월 한 달간 국가와 지자체 합동으로 강도높은 불법어업 합동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은 무허가조업과 포획 채취 금지기간, 금지제장, 금지구역위반, 포획금지 어종, 불법어획물 운반 소지 판매 등이며 사전 홍보와 계도 이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부안=김민준기자 jun@

정읍시 “임실 옥정호 난개발 막겠다”

시·군 상생협력조례 등 근본 대책 마련해야

정읍지역민들이 임실군의 옥정호 개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실군이 협의나 상의조차 없이 12만 정읍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에 보트를 띄우는 수상레포츠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난개발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장학수 전북도회의원(정읍시·문화건설안전위원회)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정읍시민의 식수원 옥정호 상수원 난개발 방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와 임실군은 옥정호 상수원 난개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지난 2015년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중재와 정읍시가 임실군과의 상생을 전제로 통근 결단을 내리면서 식수원으로 사용중인 옥정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중 임실지역 내 모든 면적에 대해 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해제 당시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 시·군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수질을 보전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지만, 임실군이 약속을 어기고 정읍시 등과 아무런 상의와 협의도 없이 옥정호 난개발

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임실군이 추진중인 옥정호 개발사업은 무조건 반대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개발을 하더라도 정읍과 임실이 협력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선언서에 명시된 내용을 조례로 만들고, 난개발만은 막아내자는 게 정읍시민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특히 “이번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은 시·군간 지도 감독 위치에 있는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며 “전북도는 어정쩡한 행정으로 반복과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양 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1999년 임실군 운암면과 강진면, 정읍시 산내면 일원 수면 21.9㎢ 일대에 지정됐으며, 임실군은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한 끝에 지난해 5월 전북도와 인근 임실·순창군의 협조로 모든 면적이 해제됐다.

/정읍=박기성기자 parkks@



꽃보다 고인돌

정읍군은 도로화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장성을 우동마을에 있던 고인돌을 이곳으로 옮겼다고 한다. 길이 3.5m, 무게 24톤에 이르는 거석으로 청동기시대에 만들어진 덮개돌형 지석묘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부안마실길 건강 걷기 6일 모항해수욕장서 개최

부안군은 2일 “제4회 부안마실길제(6~8일) 부대행사로 ‘부안마실길 오복 걷기 행사’를 오는 7일 오전 10시 모항해수욕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변산마실길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길 걷기’ 행사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부안마실길 코스 중 가장

인기가 높은 모항해수욕장서 곰소다운도부지까지 12km 구간을 탐방하게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행사구간은 푸른 바다와 갈매기, 드넓은 갯벌, 신우대 터널길 등 경관이 뛰어난 구간으로 가족, 연인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민준기자 jun@

광양 포스코 법인지방소득세 241억 납부

市 전체의 77.5% 차지

광양시는 “포스코가 법인지방소득세 241억원을 신고 납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포스코의 2015년 귀속분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523억원에서 국내의 포스코 건

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서 광양시가 차지하는 비율 46.1%에 따라 배분된 세액으로 지난해 230억원보다 4.8%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 요인은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평가 이익과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주식매각으

로 발생한 순이익 등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를 제외한 광양시 관내 기타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예상액은 1300여개 법인의 70억여원이어서 포스코 납부액이 전체의 77.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가 광양시에 납부한 취득세 등 조세와 주민세 등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총 511억여원으로 광양시 총 세입 2039억여원의 25.1%에 달한다.

광양시는 그동안 2300여개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기간에 담당팀 상시 비상체제 구축과 전산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세정과(061-797-2282, 2286)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 주택 / 투 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식당, 커피숍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 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3억3천만원
4. 나주시 송촌동 신축주택 대지596㎡ 건물85㎡ 남향 텃밭있음 동신대인근 매2억1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서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2억9천
6.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 5,100㎡ 황토주택3층 교통편리 매7억9천

농 지 / 임 야

1.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담 6,579㎡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매4억8천
2.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4,007㎡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일부 농림지역) 혁신도시인근 매9억7천만원
3.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 도로접 매7억9천
4. 나주시 산포면 등성리 3,015㎡ 4차선도로변 생산관리지역 판매시설 공장 최고적합 매6억5천만원
5.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7,273㎡ 혁신도시근거리 보전 관리지역 연수원 공장적합 투자유망 매8억5천만원
6.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일반임야 18,838㎡ 2차선도로변 농림 지역 혁신도시근거리 매22억9천
7.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담 4,807㎡ 생산관리지역 농로양호 투자유망 매1억6천만원
8. 나주시 금천면 신전리 담 8,825㎡ 매2억8천만원
9.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배18년생 과수원 7,934㎡ 혁신도시 1km 투자유망 매7억2천만원
10. 나주시 봉황면 용전리 담2,170㎡ 2차선 도로변 농업용 창고 적합 매7천2백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장흥군 인양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외지는 3억3천
- 순창군 북동면사무소 부근 대지 991㎡ 전원생활적합 4000만원
- 담양군 봉산면 외우리 600여㎡ 생묘부근 1억천
- 담양군 남면 만월리산 11883㎡ 위지·전망좋은 2억
- 화순군 동북면 가수리 3005㎡ 전원생활등 적합 4500만원

투자 · 매도 · 교환

- 차고지 공장 창고 적합 광산구 우스 호텔 부근 1446㎡ 1억9천
- 월산동 보리피트 부근 2층 주택 대지 162㎡ 건평 150㎡ 1억4천
- 가곡면지 적합 화순 도암면 정촌리 496㎡ 매도 2200만원
- 광산구 장수동 자연복지 공장·창고적합 1702㎡ 2억5천
- 광산구 송촌동 영광동 4기리 땅 272㎡ 매도 4억천
- 삼기주택 월산동 동신대 병원뒤 대지 187㎡ 건평 170㎡ 1억5천
- 월산동 농성동 연문 건너편 땅 131㎡ 건평 174㎡ 1억9천
- 진도군 고군면 백파리산 16860㎡ 염수사용도 적합 3500만원
- 담양과 광주경계 가든 땅 2394㎡ 가든은 운영중임 6억7천
- 부안군 해례면 삼암지 313평 은행 2억9천 매도 교환 3억4천

상가건물

- 남구 월산동 농성초교부근 대지 136㎡ 3층건물 198㎡ 매도 2억9천
- 순창군 북동면 대지 662㎡ 3층건물 495㎡ 은행 1억5천 매도 2억2천
- 월산동 병원적합 대지 331㎡ 건평780㎡ 4층건물 7억2천
- 월산동 운지각 부근 마당이 있는 2층 주택 리모델링 해서 식당으로 적합 대지 222㎡ 건물 131㎡ 은행 1억 매도 2억5천
- 월산동 송방도로 코너 대지 117㎡ 건평 74㎡ 1억2천
- 전대 정문부근 신축 임플·상가 대지 166㎡ 건물 344㎡ 은행 1억5천 보증금 1억5천 월 381만원 매도 6억8천
- 신축빌딩 창성군 진원면 땅 1201㎡ 주택 112㎡ 3억2천
- 송촌의 부근 신축건물 대지 298㎡ 건물 567㎡ 원룸2 투룸10 인접은 주인이 살고 전세 2억3천 월 265 매도 8억6천
- 상안동 시골마을 모델 대지 407㎡ 건물 1914㎡ 객실 40개와 옥상 주택 16억 이상 은행 11억 5천 영업적합 13억
- 담양군 남면 팬션 대지 1516㎡ 건물 335㎡ 객실 8개 4억5천

임대

- 화에던지 농수산물 시설등 다용도 가능지역 서구 용두동 약 4500㎡ 평당 2800원씩 장기 임대가능 조건은 조정함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20년 전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물건

- 나주시 경현동 지하층~지상3층근린시설 토지450평
요양병원추천 ▶ 감정이 31억 최저가 11억(감정가의36%)
- 화순군 도곡면 전 359평 도로접 도곡농공단지 맞은편
창고용지 소방도로접 ▶ 거래가 4천5백만원
- 나주시 경현동 답555평 포장도로접 다목적 이용가능
주변환경좋은. 음식점,전원주택추천 ▶ 거래가 2억1천만원
- 북구 충효동 전360평 주변환경 좋은 투자기회높음
전원주택지 적합 투자가치 ▶ 거래가 3천3백만원
- 북구 연제동 근린시설지하층~3층 연세동현대아파트부근
도로접 사무실추천 ▶ 감정이5억2천 최저가3억7천만원

병원.사옥.상가.대지.창고부지 매매

- 동구 동명동 토지212평 8층건물606평 상가및오피스텔
4차선도로접 투자수익 ▶ 감정이20억 최저가13억7천만원
- 북구 풍향동 원룸 3층건물101평 대지47평 교육대인근
수익물건 ▶ 감정이 2억4천 최저가 1억7천만원
- 화순군 동면 건 449평 토지2,070평 전원주택부지추천
도로접 마을입구 ▶ 감정이 13억2천 최저가 4억4천만원
- 서구 양동 건물425평 대지175평 숙박시설 방40개
지하층~지상5층 ▶ 감정이11억 최저가6억(감정가의56%)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오피스텔 매매

(여수 둔덕동 전남대와 성심병원 중간)

토지: 549㎡(166평) 건물: 2,510㎡(759평)

1층 주차장
2층 상가 (10평 대형 세탁소 운영중)
3층~7층 (원룸 4개 스킨리프 2개)
8층 36평형 아파트 2개 (각 방 3, 거실, 배란다, 텃밭)

용 8억 (금리3.3%)
보 7천 / 실투자 6억 8천

□ 월 세 → 1,450만
□ 매매가 → 15억5천

- 6억8천 투자하고 8층 36평 아파트에서 야경과 조망권 좋은곳에 살면서 매월 월세 1,000만원 수익발생
- 세금 면제 (1가구 1주택일 경우 세금 면제)
- 사택으로 사용가능 (회사나 개인 사무에서 구입 직원 복지 차원으로 사용)
- 게스트 하우스 사용가능 (여름 성수기 및 주말 여수를 찾는 여행객 숙소 부족)

주인직거래 010-3684-3886